

「法學」 제50호의 刊行에 즈음하여

1959년 6월에 서울대학교 「法學」이 創刊된지 어언 23년의 세월이 흘러 갔다. 그동안 우리 社會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급격한 變化를 겪고 또한 끊임없는 발전을 追求하면서 새로운 開發을 서둘러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른바 中進國의 대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法學의 水準도 그만큼 向上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서울대학교 「法學」은 間斷없이 刊行되어 이제 通卷 50號에 이르게 되었다. 50호를 맞으며 생각하건대, 그동안 「法學」이 國內外의 法學者와 法律實務家들의 수준 높은 論文, 判例研究, 研究노트, 書評 및 資料해설 등을 폭 넓게 수록, 발표함으로써 한국 法學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에 큰 몫을 해 왔다고 自負하는 바이며, 동시에 「法學」과 先進諸國의 法學과의 多邊的인 交流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交流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자극은 종래 年 2回로 發刊해 오던 「法學」을 季刊(Quarterly Edition)으로 增刊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었다(1981년부터 季刊). 물론 여기에는 刊行經費, 原稿수집 및 編輯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따르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韓國 法學의 발전을 자극하고 건인해야 할 「法學」의 역할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모든 어려움을 克服하고 그것은 끊임없이 뻗어 나가야 하며 또한 나갈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통권 50호의 刊行에 즈음하여 그동안 「法學」을 위해 공헌해 주신 모든 人士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보다 알찬 「法學」, 그리고 世界的 水準의 「法學」으로 이끌어 올리는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1982. 6.

서울대학교 法學研究所長

裴 載 湜